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밝은 달 보니 놀라서 짚어대네

#### 오동페월도(梧桐吠月圖)

오동페월도는 오동나무 가지 위에 높이 걸린 밝은 달을 보고, 놀라 짚어대는 개를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축견페월(蜀犬吠月)에서 유래했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나오는 유비(劉備)가 제갈공명과 함께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자리잡은 중국 사천성(四川省)은 촉나라 땅이었다.

이 지역은 중국 중부 양자강 상류 사천분지와 티베트고원 동부에 걸친 곳으로 예전부터 기후가 따뜻해 비가 많이 내리고, 높고 험준한 산이 많은데다, 날이 흐린 날이 많아서 달을 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가끔 밝은 달이 높이 뜨면, 민가의 개들이 놀라서 짚었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이다.

근세 풍속화의 대가인 홍월헌(弘月軒) 김득신(金得臣)이나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이 그린 개그림들이 유명하다. 영화 취화선(醉畫仙)에는 오원(吾園) 장승업(張承業)이 그린 그림을 화가인 김선두가 다시 모사해 그린 오동페월도가 나온다.



오동페월도(심전 안중식 작)

사는 이 농부의 집에 어느 여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살았다. 5년 여를 함께 살았다는 이 암강아지는 워낙 똑똑하고, 눈치가 있어서 집의 아기가 우물을 향해 기어가면 물더러가 밧마루에 놓고, 손님이나 친지가 아닌 사람이 사립문을 들어서면, 짚었다. 멀리해서 식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냈다.

들여와 산지 5년이 다 된 어느 초복(初伏)이 다 된 여름에 마루에 누워 개를 쳐다보던 농부가 말했다. “올 여름에는 저 개xx를 잡아서 끓여 먹어야겠다.” 그 말을 들은 개는 시골집 섬돌과 마루 사이 공간에 들어가서 밥도 먹지 않고 사흘을 꼬박 꼼짝도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온 집안 식구들의 꿈에 돌아간 아버지가 생전처럼 지팡이를 짚고, 낡은 두루마기를 입고,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 엄마한테 잘 헤드려라”하며 되돌아 떠나는 것 아닌가. 꿈이든 말든, 식구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도대체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밧마루 밑에 있다”하며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식구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고, 밧마루 앞에 모여, “어머니 나오세요”를 외치니 암개가 굶어서 힘없는 모습으로 설설 기어 나왔다.

식구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스한 사랑방에 자리를 해주고, 살아생전 모친의 소원이던 금강산 유점사와 묘향산 보현사를 보여주려 길을 떠나는 모습이 그 신문에 실려 있었다 한다.

이런 일이 현실에 생기면, 전생(前生)과 윤회(輪廻)가 어찌 없다고 말할 수 있으려 인과(因果)는 분명해, 촘촘한 그물과 같아 새어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비록 가족에 집착해 개로라도 태어나서 함께 사는 개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는 있지만, 그 끈끈한 정(情)과 집착의 결과는 웃음을 삼가 바로 잡게 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오동페월도 '축견페월'에서 유래

#### 근세 풍속화에서 개(犬) 소재로 그려

#### 홍월헌·김득신·안중식 그림 유명

#### 개는 어리석기보다는 이상 강한 동물

이 축견페월이라는 고사성어는 어리석고 미숙한 중생이 어질고 덕있는 현자(賢者)를 욕하고 비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개는 그리 어리석고 미숙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개는 이상(我相)이 매우 강하다. 동물연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키우는 개들의 10마리 중 4마리는 평생 자신들이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는다고 한다.

'동물농장'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보면, 집안의 말쑥꾸러기인 강아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코너가 따로 있다. 거기 나오는 동물전문가의 훈육에 따라 개교전선(改過遷善)하는 개들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

옛 경전에 의하면, 우리 주변의 동물들은 전생(前生)에 우리 친척이나 부모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일제시대 간행된 어느 신문에는 잘 만든 삼태기를 지게에 엮고, 거기에 집에서 키우던 암늬진돗개를 엮고, 묘향산 보현사를 탐방하는 경상도의 농부처사 일화가 나온 적이 있다.

경상도 지역 어느 시골에 제법 농사를 짓고

# “수건 보다 108산사 염주 어때요?”

## 불교 액세서리 기업 'ميم', 108디자인프로젝트 실시

불교 액세서리를 만드는 김민지 대표(28)는 2011년 1월 사회적기업인 'ميم(mim, made in mind 이하 'mim')'을 설립한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08개 사찰의 고유 문화유산을 디자인한 펜던트와 염주를 만들어 해당 사찰에 판매하는 '108디자인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현재 낙산사의 해수관음상, 약사사 대웅전 석불 등을 직원들과 손수 디자인하고 펜던트를 제작해 납품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의 80%가 불교문화인데 왜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답답했어요.”

김민지 대표는 사찰에서 수건이나 락 등 사찰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물건을 행사 때 나눠주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 해당 사찰의 특성을 살린 문화재를 소재로 불교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일 쉬운 염주부터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요즘 천연석 팔찌가 유행이거든요. 또 웬만한 불자들은 염주 하나씩은 다 차고 있었어요.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부담없고. 그래서 원을 세우고 108개 사찰 염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해당 사찰명을 새긴 상자에 염주의 의미와 사찰을 소개하는 설명서를 넣는 등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ميم'은 201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의 펜던트와 목걸이, 귀고리, 반지 등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출시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커피염주'는 대중의 반응이 좋다. 붉은 빛과 하늘빛의 터키석, 검정 빛의 오톨스, 황옥, 옥색 등 보기만 해도 갖고 싶은 색상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제품명답게 연인·친구,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이 함께 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김민지 대표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했다. 한국문화에서 불교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달랐다.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는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촌스럽고 후진 문화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고등학교 시절 부여박물관에 전시된 '백제금동대향로'를 본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막연한 꿈을 갖고 미술학도의 길을 걸었던 김 대표는 2010년 6월 정도희 100일 출가를 했다. 정도희 대학생 작은 짜이집 봉사를 하면서 제3세계를 돌렸다면 생각은 사회적 기업을 구체화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



김민지 대표(오른쪽)는 108개 사찰의 고유문화유산을 디자인한 펜던트와 염주를 만들어 해당 사찰에 판매할 계획이다.(오른쪽 상단부터) 낙산사 해수관음상, 약사사 석불 모형의 펜던트

렇게 해서 'ميم'이 탄생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ميم'은 크게 '국내문화사업(사찰문화사업)'과 '해외문화사업(저개발국가 문화 보존 및 교류)'으로 나누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문화사업은 급속도로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식민지 탄압 등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소외된 전통문화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민지 대표는 “문화재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과 지원이 미비한 '사찰문화'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며 “'MEDITATION PENDANT(메디테이션 펜던트)'가 개발된 '사찰문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테이션 펜던트는 한국 특유의 불교 사상(선불교 사상)을 스토리화 해

주얼리(목걸이 귀고리 반지 핸드폰고리)와 패션소품으로 상품화한 것이다. 이어 김 대표는 “사찰의 디자인경영 컨설팅과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사찰문화 꽃피우기'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해외지역문화 '문화 상품'을 발굴하고 제작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지 대표는 “처음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마음을 치유하는 불교 액세서리를 통해 불교문화재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www.minddesignmim.com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연꽃의 사계(四季) 정감 있게 표현

## 김창배 화백, '연꽃그림' 130여 점 담은 수목화집 펴내

선묘화와 다묘화를 중점 연구하는 단원 김창배 화백이 130여 점의 연꽃을 그려 한 그림을 연구하던 김창배 화백이 그림 주제를 연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선 연꽃 핀 정원과 연꽃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실례임과 반가움을 만끽한다.

“한낮이 다 가도록 연꽃 향기와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거든 연꽃을 찾아가서 새소리, 곤충 소리, 맑은 바람 소리, 달빛이 내리치는 소리, 연꽃 터지는 소리, 물 위에 반짝이는 햇살소리, 물속 물고기기 헤엄치는 소리를 들던 것만으로 명상을 즐

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김 화백은 맑은 시간 연꽃을 보며 수목화로 표현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배우며 세상 번뇌를 비울 수 있는 명상을 터득했다.

김창배 화백은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와 치유의



김창배 화백은 “앞만 보고 달려온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와 치유의



서설도(한지수목담채 2010년 작)

윤활유가 됐으면 한다”며 “무거운 번뇌를 털어 비우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독자들이 읽으며 살아가는 삶에 사유(思惟)의 시간을 가질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수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지극건강매트, 오심전조각, 요추매개등 자매포대당)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온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외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필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